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핵심 치유 성경: 요한복음 10장 17-29절 (Tag:)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10:17-29)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여전히 병원은 만원이다.

심지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암의 경우, 의사 스스로도 확신 없는 치유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환자도 몇퍼센트의 가능성에 어쩔 수 없이 항암제라는 독약을 마시게 된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치유일까?

이미 병원은 치유를 앞세운 공룡기업이 되었고, 신약개발이나 첨단 의료장비 개발은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산업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환자를 위한 신약인지, 신약 개발을 위한 환자인지도 모호하다.

그리고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소망하지 않는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만큼 악한 것들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더욱 악해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늦게 사망하는 만큼, 환자의 수는 줄지 않고 늘어난다.(죽지는 않지만, 그만큼 병원을 찾는 수는 늘어난다는 뜻.)

치유환경은 계속 좋아지는데, 여전히 환자는 줄지 않는다. 또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난다.

왜냐면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행복에 대한 평균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후하다는 것은 내가 불행하다는 것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질병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다. 죽을병은 아니라서 치유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약을 먹을만한 병도 아니어서 상담도 받을 생각이 없다.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으니 병이 없다고 믿고, 아프지 않으니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병들었고, 자기의 생활이 병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길이 아닌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충분히 자기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왜냐면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듯한 인생 결과물들을 수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오직 나의 정신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오직 나의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질병을, 내가 언제 어디에서 병들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도 잊어버렸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런 나의 아픈 것을 치유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난다.

어렵지 않다. 가장 순전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이해심이 많으시고, 가장 인격적이시고, 가장 나의 영혼이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거절하고, 그 말씀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다.
-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다.
- 나는 그 계명을 이룰 것이다. 나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 그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도 산다. 왜냐면 죽을 죄 값을 내가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다시 살게 된다.

- 이것이 핵심치유이다.
- 핵심치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고쳐지는 것도 아니다. (알 수도 없지만. 물론 알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더 크게 절망할 가능성도 커진다.) 절대적인 자, 전지 전능하신 분만이 가능한 것이 이 핵심치유이다.
- 그런데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치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신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치유의 대상이다.
- 치유를 받아야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래야 상급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결같이 생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이 된다.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방해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그렇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그들은 세례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한다. 그리고 또 찾아와서는 밝히 말씀해 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자, 신성모독이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그 정신 속에 아직 마귀가 남겨준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아서이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거짓말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

이 거짓말 때문에 여전히 순전한 믿음이 생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강론하며, 외우라고 하셨다. 외우면 마치 마귀의 거짓말을 밀어내고 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성경구절들을 암송하자. 이것이 핵심 치유에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모두 이해하고 외울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울수록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카톡이나 문자로 구절을 전송해 드릴 예정이다. 외울 때까지 외우다가 다 외운 사람은 그 구절을 지우고 다시 타이핑해서 보내도록 해보자. 도전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무엇을 주어야 얻을 수 있을까? 성경: 마태복음 7장 7-12절
(Tag:)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
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7:7-12)

-구하라, 주신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구하지만 주어서는 안되는 것을 구하면 주지
않으신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면, 애야, 너 그것 필
요 없다. 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다.

-다음으로 찾아야 한다. 연구하라는 뜻이다.

-현실은 문서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방법이 나오고, 더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구하고 찾는 것은 짝과 같다.

-구하기만 하는 것보다 찾으면서 구하는 것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구하면서 찾아도 얻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진입장벽이 있다. 장벽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의 마음을 두드려야 한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문은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면 어떤 하자가 있다. 그것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를 설득시켜야 한다면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찾아라. 다른 문이 있는가? 다른 시기가 있는가? 다른 원인이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이유를 찾아라.

-이러는 과정을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왜 나에게만?

-그렇다면 나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도 선지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을 위해 해 주어라! 이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내가 얻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형편이 갖추어진단다.

-내가 얻을 수 없다면 아직 뿌리지 않아서이고, 열매 맺지 않아서이다. 그러면 내가 뿌려야 한다. 내 자식이 거둘 것이다.

아멘.